

#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히박국 2:1-4, 히브리서 2:1-4

최정웅 목사님

## 요약

서론 : 언약이 흘러 내려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각인시켜야 한다.

### 1. 큰 구원의 전달 과정

- (1) 말씀을 주시고, 확실한 증거로 이것을 보증하십시오
- (2)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됨

### 2. 큰 구원의 내용

- (1) 혈과 육에 속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오심
- (2)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심
- (3) 죽음의 문제와 두려움에서 인간을 해방하심
- (4)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죄를 대속하심
- (5) 모든 고난과 시험을 대신하여 해결하심
- (6) 영광의 관을 쓰고 보좌에 앉으심
- (7) 지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심

결론 : 영적 집중력

- (1) 마귀의 전략 :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함 (창3, 6, 11)
- (2) 승리할 방법 : 그리스도께 집중 (행1:1, 3, 8)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을 종이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며, 우리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영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1절에 보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흘러 떠나려가게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듣고 가만히 넘어가 버리면 반드시 흘러 떠나려가 버리고 만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다. 하지만 들으면서 ‘저것 많이 들었던 이야기구나, 또 하네.’ 그렇게 해 버리면 그대로 흘러가 버린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들었던 것을 그대로 한 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못 한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한 번 보거나 들은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안 된다. 강태홍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오실 텐데, 이분은 복음메시지, 구원의 길 메시지를 3천 번 이상 이야기한 것 같다고 한다.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소중한 것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했었단가’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다고 한다. 교인들이 처음에는 적더니 나중에는 적지도 않고 더 후에는 불평을 터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집사님, 오늘은 집사님이 나와서 해 보세요.”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 그까짓 것을 못할 줄 아냐 하는 표정으로 나와서 분필을 들고 서더니, 창세기 3장까지 적고는, ‘에잇, 못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불평 없이 전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주일학생까지 이 말씀을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교회에 전도와 부흥의 문이 열리더라고 했다. 여러분, 복음을 새긴 게 아니라 흘러버리게 되면 할 수 없게 된다. 삶에 적용하는 것은 더 안 된다. 올해 우리의 주제가 뭐가? 전달을 넘어서서 각인시키라는 것이다.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라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다. 언약을 흘러 보내면 후대는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후대가 언약에 대해서, ‘아, 저것 들어봤다’ 하는 수준이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없다. 세상 것은 보양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각인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게 뿌리가 내려져서,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런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한다. 오늘 구약성경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새기라’고 했다. 각인시키라는 말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다. 우리와 후대의 영적 상태 속에 말씀이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 듣게 하고, 그것

을 유념하게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게 새겨야 한다. 오늘은 본문 그대로를 인용해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 1. 큰 구원의 전달 과정

첫 번째다. 히브리서 2장은 큰 구원의 전달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 큰 구원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성취되었다고 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복음의 말씀을 선지자, 제사장, 사도들에게 전달하셨다. 시103:20-22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심부름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다.

(2)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함께, 선지자들, 또 사도들이, 들은 것을 확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3)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임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셨다. 4절 말씀대로,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직접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했다. 막16:20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행14:3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행1장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행2장에 응답이 온다. 응답이 왔는데, 그 다음부터 3장에는 증거가 온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이다. 앓은뱅이가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현장의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 증인이 될 수 있다.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체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해야 한다. 다른 것을 더하지도 말고, 뭘 임의대로 빼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 케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 설교는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케리그마라고 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한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이 말씀이 사실인 증거를 주신다는 말이다. 말씀을 믿어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 내 마음의 심비와 육비에 아로새기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은 증거를 우리 삶에 주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났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것이 삶에 성취된 증거를 본 성도들이 많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4)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된다. 2절이다. 불신자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 반드시 보응이 본인과 후대에게 오게 되어 있다.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자이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큰 구원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여 완전히 떠난 우리, 죄에 빠져서 죽어 버린 우리 영혼,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애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큰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것이 아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은 이 큰 구원을 깨달은 사람이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큰 구원을 깨닫고 나서 부른 노래다. 이 노래가 우리 입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슴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5) 그런데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쉽게 생각한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명보다 소중한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불신자에게 오는 보응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사랑하는 참사랑 모든 가족들이 절대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히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축복을 누리야 되겠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오늘도 찬미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음을 노래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란다.

## 2. 큰 구원의 내용

그러면 이 큰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2:5-18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찾아보면서 큰 구원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란다.

(1)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은 죽어 버렸다. 육신이 되어 버렸다. 엡2:1에서, 허물과 죄로 인간은 죽어 버렸다고 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육신 속에 지내게 된 것이다. 계3:1에, 주님은 사데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혈과 육에 빠져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살리시려고, 구원의 창시자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혈과 육으로 오시게 된 것이다. 빌2:7에는, ‘자기를 비워’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비웠다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비유하자면 이렇다. 그릇을 만든 공장 사장이, 그릇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그릇이 되었다는 말이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요1:14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큰 구원의 내용이다.

(2)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히2:14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다. 요일3:8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며, 인간을 마귀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완전히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란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원수에게서 자유를 얻었구나, 이 원수는 나와 상관이 없구나.’ 잊지 마라.

(3) 세 번째,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빠져 버렸다. 육신의 죽음과 함께 지옥의 배경에 빠져 버렸다. 모든 인생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의 배경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이다.

(4) 17절에 보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자비하고 신실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기에, 자기 몸을 직접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9:12의 말씀이다. 벰전2:24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고, 히7:27에는 단번에 해결했다고 말씀했다. 롬6:10이나 히9:28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제물을 죽여서 용서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흠 없는 제물이 되어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신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이다. 롬8:2의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나 버렸다.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마라.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자도 한 사람도 없다. 주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처럼 용서를 받게 된다. 이것이 큰 구원이다. 복음을 받지 않는 죄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나니.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란다.

(5)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그뿐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온 모든 다른 문제도 해결하셨다. 18절에 보니까, 주님은 근본 문제로 인해 온 모든 시험과 고난을 대신 당하셨서,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길도 열어 주셨다. 사랑하시는 참사랑 가족들과 모든 램프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는 한 주간 되시

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순간마다 사용해 보라. 여러분이 웃었지만, 나는, ‘왜 조개가 안 잡히나. 천사야, 너는 뭐 하고 있나. 저 사람은 계속 잡는데 나는 왜 안 잡히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찢렸더니 나왔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서 그렇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원수에게 속아주지 마라. 더 이상 천사가 할 일 없게 만들지 마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직업, 학업, 사업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제발 목사님, 너무 잘 됩니다. 이것 좀 더 사용해 보세요.” 하면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란다. 너무 돈이 잘 벌리고 너무 응답이 잘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학업, 사업, 경제, 건강의 모든 고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6)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9절에,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영광과 권귀로 관을 쓰셨다고 했다.

(7)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주 사역이다. 주님이 돕고 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라는 주간,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한다.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원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가난아, 불통아, 불신앙아, 물러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라.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주님이 다 알고 있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바울이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은 함께 계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애굽, 바벨론, 로마의 문을 다 여셨다. 250년 만에 로마는 손을 들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로마를 살릴 응답의 문이며 발판이 될 것이다. 큰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절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보다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영적 집중력이라고 한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과 램프들이 영적 집중력을 크게 길러야 되겠다. 마귀의 전략은 가장 귀한 것을 등한히 여기게 하는 것이다. 자기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게 한 것이 창3장이다. 육신 때문에 영적인 것을 등한히 여기게 하는 것이 창6장이다. 성공 때문에 복음을 등한히 하게 한 것이 바로 바벨탑 쌓다가 망한 창11장의 전략임을 잊지 마라. 그것을 이길 해답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리석음이 물러간다. 무능도 물러간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다가 승리하시기 바란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주간 되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영적인 힘을 기르다 보면, 창3장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부르면 창3장이 무너진다. 네피림 시대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지금 믿으면 네피람이 물러간다. 떨어진 자, 사탄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말이다. 바벨탑 문화 이기는 성령충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성령충만하면 어둠의 세력의 문화를 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큰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집중하다가. 학업, 사업,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의 전달 과정을 알게 하시며, 큰 구원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집중력을 향상시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며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